

간호윤리 연구 동향 분석: 2009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김신미**, 이인숙**, 김세영**, 노윤구**, 박보현**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윤리 연구동향을 통해 간호윤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간호윤리연구 논문을 모두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 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KMbase), NDSL을 대상으로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생명윤리학회지, 그리고 각 간호학술지들에 게재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해 ‘간호’, ‘윤리’, ‘도덕’, ‘연명의료’, ‘생명의료윤리’, ‘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민감도’, ‘윤리 교육’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1,109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 학술대회 발표, 학술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연구, 간호윤리가 아닌 연구들을 제외하고 최종 87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를 개상으로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윤리의식이 33.7%, 이슈별 태도와 인식 20.2%, 윤리교육이 18.0% 순서로 많았다. 연구대상은 주로 간호사(44.9%)와 간호학생(42.7%)이었으며,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74.2%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 10.1%, 질적연구 9.0% 순이었다. 연구동향 분석결과 한국의 간호윤리관련 연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간호윤리관련 연구주제의 개발과 더불어 그에 적절한 연구방법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

간호, 윤리, 간호연구, KCI 등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과 유지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전문직 간호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역할로 인해 본질적으로 도덕적 행위이고 따라서 간호직은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이다[1,2]. 그 결과 오늘 날 전문가로서의 간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역량으로 간호교육 인증, 체계적인 면허제도와 함께 간호윤리가 제시되고 있다[3].

간호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893년 그레터(Gretter)와 동료들에 의해 나이팅게일 선서가 제시된[4,5] 이후 1950년에 보다 구조적이고 공식적인 윤리강령이 소개되었고[6], 1953년에는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서 처음 윤리강령을 발표하였다[1]. 우리나라는 1966년 대한간호협회 내에 윤리위원회가 발족되어 1972년에 처음으로 간호윤리강령이 공포된 후 2013년 4차 개정판을 발표하였다[1].

현대 간호윤리는 의료윤리와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특히 이 생명의료윤리는 간호윤리의 발전과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호학제가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항상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인해 의학, 신학, 철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7]. 그러한 이유로 간호윤리를 생명의료윤리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8] 생명의료윤리를 포함하여 다학제 팀워크의 부분으로서의 간호윤리를 주장하기도[3,7] 하

는 등, 간호윤리와 간호윤리 연구가 현대 보건의료 환경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간호 영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윤리적 이슈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환자 및 간호직 동료[9], 간호 전문직 자체와 사회 전반[10],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게 되는 각종 결정들[1,11]과 관련한 것이다. 이들 영역은 각 나라의 간호윤리 강령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보건의료 환경에서 윤리 이슈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보건의료 자원 부족 현상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및 종교적 규범들의 충돌 등으로 인해 윤리적 이슈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2]. 보건의료 환경 중 병원 환경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그리고 재정적 압박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들로 의료윤리와 관련한 문제들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13].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국간호정상회의(National Nursing Summit)[14]에서는 간호윤리와 관련하여 임상실무, 교육, 연구, 정책의 4가지 주제 영역을 제시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이렇듯 점차 복잡해져가는 보건의료계의 윤리 이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교적 최근의 현상들만 보더라도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의료인 개개인의 직업윤리 문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기관과 정부 차원의 이슈, 김 할머니 사건과 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은 법제화와 정책으로 이어져 의료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와 의료계 내외의 문제들, 그리

고 의료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들로 인해 정부는 2017년 3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보수교육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와 더불어 윤리적 이슈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의학의 경우 이미 의학전문성을 위해 임상 능력 외 의료윤리적 소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15] 의료윤리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교육공학적 측면에서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간호분야에서는 간호윤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고시에 간호윤리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학부 강의와 관련 교재 번역 혹은 편찬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간호윤리연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성찰의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ational Nursing Summit [14]에서 제시한 간호윤리 4개 주제영역 중 연구 부분에서의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 간호윤리연구의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윤리 논문들 중 원저(original article)를 조사하여 연구주제,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게재저널, 주요어 별로 구분하여 간호윤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미래 간호윤리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정 기간 한국학술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윤리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한국의 간호윤리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부터 1월부터 2016년 5월말까지 모든 국내 학술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간호’, ‘간호사’, ‘윤리’, ‘도덕’, ‘생명의료윤리’, ‘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민감도’, ‘윤리 교육’, ‘연명의료’ 등 검색어를 한글과 영문 모두를 적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연구 중, 본 연구 분석을 위해 간호윤리관련 논문 중 원저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간호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미출판 학위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 학술대회 발표 초록은 전문이 가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3. 연구동향 분석 도구

한국의 간호윤리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 문헌[16]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팀의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연구주제 분석틀을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연구동향 분석 도구에 포함된 항목은 1) 연구주제, 2) 연구설계, 3) 연구대상, 4) 연구도구, 5) 발표저널 유형, 6) 주요어로 구성하였다. 분석틀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 및 작성근거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분석을 위하여 EthxWeb Bibliographies by Topic [17]의 bioethics topics과 ‘한국 간호윤리 연구에 대한 양적분석’ [16]에서 제시된 연구주제 분석틀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 회의를 통해 연구주제 분석을 위한 연구주제 분류틀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윤리교육, 윤리의식,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민감성, 이슈별 태도와 인식, 윤리풍토, 윤리적 의사결정, 도구평가, 연구윤리, 기타의 총 10개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이 연구설계와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주제 분류가 모호한 경우 연구자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연구설계를 불문하고 종속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주제 분류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또는 윤리교육 주제에 대한 내용의 경우 윤리교육으로 분류하였으며, 윤리적 가치관이나 윤리인식, 윤리의식 등은 윤리의식으로 분류하였다. 윤리적 딜레마와 도덕적 고뇌의 경우 윤리적 딜레마로 분류하였고, 도덕적 민감성을 다루는 논문은 경우 도덕적 민감성으로 분류하였고, 생명의료윤리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들 즉, 장기이식, 줄기세포치료, 심폐소생술 금지, 품위있는 죽음, 연명의료결정 등의 내용은 이슈별 태도와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설계는 크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연구로 구분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실험설계와 조사(survey) 연구로 구분하였다. 실험설계에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단일 그룹 사전사후 설계를 포함하였으며, 비실험설계 연구의 경우, 조사연구에는 서술적 조사 연구, 비교연구, 상관관계 연구, 방법론적 연구 등을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에는 현상학, 근거이론, 해석학적 접근, 민속지, 내용 분석, 나레이티브 연구를 포함하였다. 혼합연구에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혼합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기타 연구에는

텔파이연구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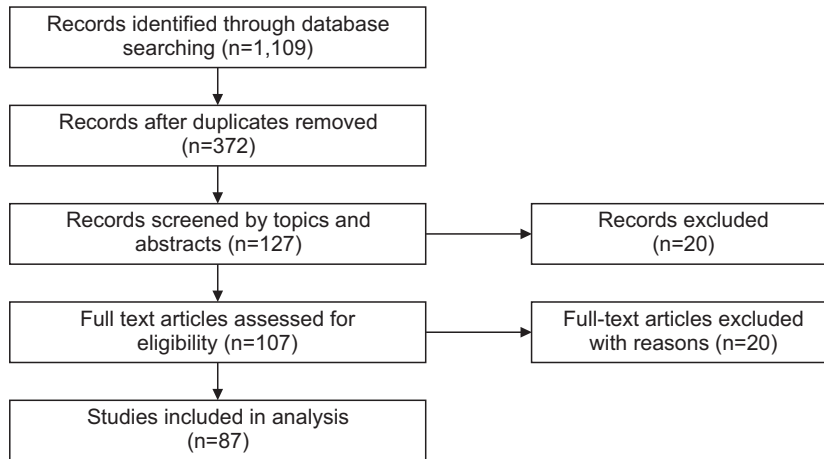
연구대상은 간호사, 의사와 같은 임상전문가, 간호학생이나 비간호학생과 같은 대학생 집단, 간호연구자, 혹은 전문가 패널과 같은 다양한 대상자들이 각각 혹은 함께 연구되어 이를 분류하여 7종의 대상자 집단으로 구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논문 게재저널은 3가지 범주 즉, 간호학 저널, 생명 또는 의료윤리 저널, 그리고 다학제 저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어는 논문에서 제시된 그대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 즉, 생명윤리(bioethics)와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는 같은 용어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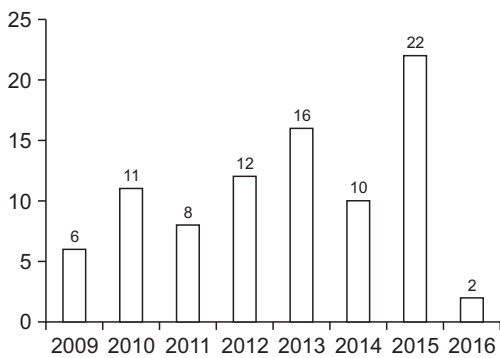
4.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은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NDSL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상에 노출되지 않은 연구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간호윤리와 관련된 학술지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생명윤리학회지 및 대한간호학회지, 한국간호행정학회지, 간호교육학회지 등 전체 간호 학술지를 해당 기간 전체로 검색하였고, Google Scholar Korea를 추가로 검색하였다. 검색 방법은 2009년 이후에 게재된 연구 중 먼저 ‘간호’, ‘윤리’ 또는 ‘도덕’을 조합하여 입력하였고, 이들을 제목, 초록, 색인에 포함하여 연구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 ‘생명의료윤리’, ‘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민감도’, ‘윤리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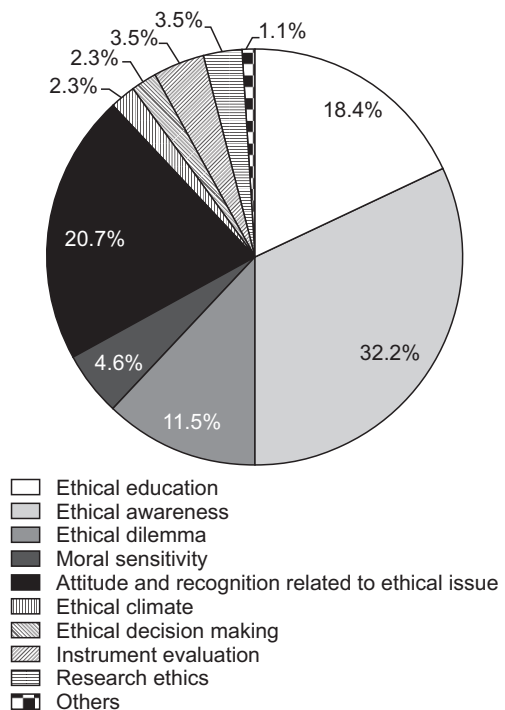
〈Figure 1〉 Process of searching and selecting literatures.



〈Figure 2〉 Number of research articles by year.



〈Figure 3〉 Research topics status.



육' 등 주요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포함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출판된 간호윤리연구로 1) 간호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2)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연구, 3) 원저로 하였다. 그 결과 총 논문 1,109편을 검색하였다. 이 중 제목과 초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복, 미출판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자료, 학술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닌 연구, 간호윤리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여 최종 87개 문헌을 선정하였다<Figure 1>.

최종 선정된 87개의 논문은 전체 원문을 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원문 자료는 연구자들이 2인 1조로 나누어 분석틀에 의거하여 검토를 실시하였고, 분석틀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체 연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87편 각 논문별로 분석틀에 의거하여 엑셀에 정보를 입력한 후 부호화하여 처리하였으며, IBM SPSS 23.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주요어의 경우 빈도 분석과 더불어 단어구름(word cloud)을 도출하였다.

III. 결과

1. 연도별 출판빈도, 연구주제,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게재저널

2009년에서 2016년 5월말까지 출판된 연구들 중 연도별 논문편수는 2015년이 22편(25.3%)으로 가장 많았으며<Figure 2>, 연구주제는 윤리의식이 32.2%로 가장 많았고, 이슈별 태도와 인식이 20.7%, 윤리교육이 18.4%, 윤리적 딜레마가 11.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연도별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Table 1>, 윤리의식이 28편(32.2%)으로 가장 많았고, 윤리 이슈별 태도와 인식이 18편(20.7%), 윤리교육이 16편(18.4%), 윤리적 딜레마 10편(11.5%), 도덕적 민감성 4편(4.6%), 도구평가와 연구윤리가 각각 3편(3.5%), 윤리풍토와 윤리적 의사결정이 각각 2편(2.3%), 기타(임종치료선택도) 1편(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리교육과 윤리의식의 경우는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윤리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구평가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별 분석 결과 조사연구가 64편(7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연구 9편

(N=87)

Variable	Categorie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Research topics	Ethical education	2 (33.3)	1 (9.10)	1 (12.5)	2 (16.7)	2 (12.5)	3 (30.0)	4 (18.2)	1 (50.0)	16 (18.4)
	Ethical awareness	2 (33.3)	3 (27.3)	2 (25.0)	3 (25.0)	4 (25.0)	5 (50.0)	9 (40.9)	0 (0.0)	28 (32.2)
	Ethical dilemma	1 (16.7)	0 (0.0)	1 (12.5)	4 (33.3)	3 (18.8)	0 (0.0)	1 (4.5)	0 (0.0)	10 (11.5)
	Moral sensitivity	0 (0.0)	1 (9.1)	0 (0.0)	0 (0.0)	2 (12.5)	0 (0.0)	1 (4.5)	0 (0.0)	4 (4.6)
	Attitude and recognition related to ethical issue	1 (16.7)	4 (36.4)	3 (37.5)	2 (16.7)	3 (18.8)	0 (0.0)	5 (22.7)	0 (0.0)	18 (20.7)
	Ethical climate	0 (0.0)	0 (0.0)	0 (0.0)	0 (0.0)	1 (6.3)	0 (0.0)	1 (4.5)	0 (0.0)	2 (2.3)
	Ethical decision making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 (50.0)	2 (2.3)
	Instrument evaluation	0 (0.0)	0 (0.0)	0 (0.0)	0 (0.0)	1 (6.3)	1 (10.0)	1 (4.5)	0 (0.0)	3 (3.5)
	Research ethics	0 (0.0)	1 (9.1)	1 (12.5)	1 (8.3)	0 (0.0)	0 (0.0)	0 (0.0)	0 (0.0)	3 (3.5)
	Others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Table 1> Research Trends by Year (n, %)

<Table 1 > Continued

Variable	Categorie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1 (16.7)	1 (9.1)	1 (12.5)	2 (16.7)	1 (6.3)	3 (30.0)	0 (0.0)	0 (0.0)	9 (0.3)
	Survey	4 (66.7)	8 (72.7)	7 (87.5)	8 (66.7)	11 (68.8)	6 (60.0)	19 (86.4)	1 (50.0)	64 (73.6)
	Qualitative	1 (16.7)	2 (18.2)	0 (0.0)	2 (16.7)	2 (12.5)	0 (0.0)	1 (4.5)	0 (0.0)	8 (9.2)
	Mixed method	0 (0.0)	0 (0.0)	0 (0.0)	0 (0.0)	2 (12.5)	1 (10.0)	1 (4.5)	1 (50.0)	5 (5.8)
	Others (delphi)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1 (1.1)
			2 (33.3)	6 (54.5)	2 (25.0)	7 (58.3)	9 (56.3)	3 (30.0)	9 (40.9)	1 (50.0)
Research population	Nurse	0 (0.0)	1 (9.1)	1 (12.5)	0 (0.0)	0 (0.0)	0 (0.0)	1 (4.5)	0 (0.0)	3 (3.5)
	Nurse and physician ect.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Nursing researcher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Nursing student	3 (50.0)	2 (18.2)	4 (50.0)	4 (33.3)	6 (37.5)	6 (60.0)	11 (50.0)	1 (50.0)	37 (42.5)
	Panel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Research instrument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	1 (16.7)	1 (9.1)	1 (12.5)	1 (8.3)	1 (6.3)	0 (0.0)	0 (0.0)	0 (0.0)	5 (5.8)
	Instrument from previous study	2 (33.3)	5 (45.5)	5 (62.5)	7 (58.3)	11 (68.8)	7 (70.0)	15 (68.2)	2 (100.0)	54 (62.1)
	Translated/ revised instrument	1 (16.7)	2 (18.2)	2 (25.0)	2 (16.7)	2 (12.5)	1 (10.0)	4 (18.2)	0 (0.0)	14 (16.1)
	Developed by researcher	2 (33.3)	2 (18.2)	1 (12.5)	1 (8.3)	1 (6.3)	2 (20.0)	1 (4.5)	0 (0.0)	10 (11.5)
	Not applicable	1 (16.7)	2 (18.2)	0 (0.0)	2 (16.7)	2 (12.5)	0 (0.0)	2 (9.1)	0 (0.0)	9 (10.3)
			Mean±SD=3.76±0.99							
Number of keyword	1~2	4 (66.7)	1 (9.1)	1 (12.5)	1 (8.3)	2 (12.5)	1 (10.0)	0 (0.0)	0 (0.0)	10 (11.5)
	3~4	2 (33.3)	6 (54.5)	4 (50.0)	9 (75.0)	13 (81.3)	7 (70.0)	13 (59.1)	1 (50.0)	55 (63.2)
	5~6	0 (0.0)	4 (36.4)	3 (37.5)	2 (16.7)	1 (6.3)	2 (20.0)	9 (40.9)	1 (50.0)	22 (25.3)
Total		6 (100.0)	11 (100.0)	8 (100.0)	12 (100.0)	16 (100.0)	10 (100.0)	22 (100.0)	2 (100.0)	87 (100.0)

SD : standard deviation.

(10.3%), 질적 연구 8편(9.2%), 혼합연구가 5편(5.8%), 기타 델파이 연구가 1편(1.1%)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연구는 매년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혼합연구의 경우 2013년부터 매년 1편 이상씩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Table 1>.

연구대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9편(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대학생 37편(42.5%), 간호대학생과 비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5.8%),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3.5%), 간호연구자, 전문가패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1편(1.1%)으로 나타났다 <Table 1>.

각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개발, 제안 혹은 사용된 연구도구의 사용이 54편(62.1%), 연구자가 기개발된 도구를 자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연구도구가 14편(16.1%), 연구자가 자체 개발하여 사용한 연구도구가 10편(11.5%)으로 나타났다. 게재저널의 경우 윤리관련 저널(한국생명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등)이 35편(40.2%)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저널이 26편(29.9%), 기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등) 26편(29.9%)으로 나타났다.

2. 연구주제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게재 저널

연구주제별 연구설계는 윤리의식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가 27편(전체 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윤리교육을 주제로 한 실험연구가 9편(전체 10.3%), 이슈별 태도와 인식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가 15편(전체 17.2%), 윤리교육과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민감성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가 각각 4편(전체 4.6%), 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한 질적연구가 4편(전체 4.6%), 연구윤리를 주제로 한 조사연구와 이슈별 태도와 인식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가 각각 3편(전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의 경우 각 연구주제별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연구주제별 연구대상은 윤리의식을 주제로 한 간호대학생 대상 논문이 18편(전체 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리교육을 주제로 한 간호대학생 대상 논문이 12편(전체 13.8%), 이슈별 태도와 인식을 주제로 한 간호사 대상 논문이 11편(전체 12.6%), 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한 간호사 대상 논문이 9편(전체 10.3%), 윤리의식을 주제로 한 간호사대상 논문이 8편(전체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연구주제별 연구도구의 경우 윤리의식을 주제로 한 기개발된 도구의 사용이 21편(전체 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리교육부분에서는 기개발된 도구의 사용이 8편(전체 9.2%), 이슈별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는 기개발된 도구의 사용이 7편(전체 8.0%),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기개발된 도구의 사용이 6편(전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출판 저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윤리관련 저널 출판이 가장 많았으며(40.2%) 간호와 기타 다학제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후보)급 저널 출판은 유사한 빈도로 나타난 가운데, 윤리의식 연구는 기타 다학제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후보)급 저널에 가장 많이 출판되었으며 간호윤리교육 연구는 간호저널에 가장 많이 출판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연도별 출판저널을 분석한 결과 <Table 3>, 간호윤리 연구 논문은 총 25가지의 저널에 출판되었으며, 윤리관련 저널(한국의료윤리학회지, 생명윤리 등)이 35편(40.2%)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저널이 26편(29.9%), 기타 다학제저널(한국산

(N=87)

<Table 2> Research Design, Population, Instrument, Published Journal by Topics (n, %)

Variable	Categories	Attitude and										Total		
		Ethical education	Ethical consciousness	Ethical dilemma	Moral sensitivity	Ethical recognition related to ethical issue	Ethical climate	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 evaluation	Research ethics	Others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design	9 (56.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3)
	Survey	4 (25.0)	27 (96.4)	4 (40.0)	4 (100.0)	15 (83.3)	2 (100.0)	2 (100.0)	2 (66.7)	3 (100.0)	1 (100.0)	64 (73.6)		
	Qualitative study	0 (0.0)	1 (3.6)	4 (40.0)	0 (0.0)	3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9.2)
	Mix method	2 (12.5)	0 (0.0)	2 (20.0)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5 (5.8)		
	Others (delphi-method)	1 (6.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Research population	Nurse	3 (18.8)	8 (28.6)	9 (90.0)	3 (75.0)	11 (61.1)	2 (100.0)	2 (100.0)	1 (33.3)	0 (0.0)	0 (0.0)	39 (44.9)		
	Nurse and physician ect.	0 (0.0)	0 (0.0)	0 (0.0)	0 (0.0)	2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3 (3.5)		
	Nursing researcher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1 (1.1)		
	Nursing student	12 (75.0)	18 (64.3)	1 (10.0)	1 (25.0)	2 (11.1)	0 (0.0)	0 (0.0)	1 (33.3)	2 (66.7)	0 (0.0)	37 (42.5)		
	Panel	1 (6.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Nurse and nursing student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1 (1.1)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	0 (0.0)	2 (7.1)	0 (0.0)	0 (0.0)	3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5 (5.8)		
Research instrument	Instrument from previous study	8 (50.0)	21 (75.0)	6 (60.0)	4 (100.0)	7 (38.8)	1 (50.0)	2 (100.0)	2 (66.7)	2 (66.7)	1 (100.0)	54 (62.1)		
	Translated/ revised	3 (18.8)	4 (14.3)	0 (0.0)	0 (0.0)	5 (27.8)	1 (50.0)	0 (0.0)	1 (33.3)	0 (0.0)	0 (0.0)	14 (16.1)		
	Developed by researcher	4 (25.0)	2 (7.1)	0 (0.0)	0 (0.0)	3 (16.7)	0 (0.0)	0 (0.0)	0 (0.0)	1 (33.3)	0 (0.0)	10 (11.5)		
	Non applicable	1 (6.2)	1 (3.6)	4 (40.0)	0 (0.0)	3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3)		
	Nursing journal	4 (25.0)	7 (25.0)	5 (50.0)	0 (0.0)	5 (27.8)	1 (50.0)	0 (0.0)	3 (100.0)	1 (33.3)	0 (0.0)	26 (29.9)		
Published journal	Ethics related journal	8 (50.0)	8 (28.6)	2 (20.0)	3 (75.0)	9 (50.0)	0 (0.0)	2 (100.0)	0 (0.0)	2 (66.7)	1 (100.0)	35 (40.2)		
	Other (multidisciplinary journal)	4 (25.0)	13 (46.4)	3 (30.0)	1 (25.0)	4 (22.2)	1 (50.0)	0 (0.0)	0 (0.0)	0 (0.0)	0 (0.0)	26 (29.9)		
	Total	16 (100.0)	28 (100.0)	10 (100.0)	4 (100.0)	18 (100.0)	2 (100.0)	2 (100.0)	3 (100.0)	3 (100.0)	1 (100.0)	187 (100.0)		

(N=87)

<Table 3 > Published Journal by Year (n, %)

Type of publishing journal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Nursing journal									
<i>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i>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2 (2.3)
<i>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i>	1 (16.6)	1 (9.1)	0 (0.0)	0 (0.0)	3 (18.8)	2 (20.0)	1 (4.5)	0 (0.0)	8 (9.2)
<i>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i>	0 (0.0)	1 (9.1)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2 (2.3)
<i>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i>	0 (0.0)	0 (0.0)	2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3)
<i>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i>	1 (16.6)	1 (9.1)	0 (0.0)	1 (8.3)	0 (0.0)	0 (0.0)	1 (4.5)	0 (0.0)	4 (4.6)
<i>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i>	0 (0.0)	1 (9.1)	1 (12.5)	1 (8.3)	0 (0.0)	0 (0.0)	0 (0.0)	0 (0.0)	3 (3.5)
<i>Asian Oncology Nursing</i>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1)
<i>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i>	0 (0.0)	1 (9.1)	0 (0.0)	1 (8.3)	0 (0.0)	0 (0.0)	0 (0.0)	0 (0.0)	2 (2.3)
<i>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i>	0 (0.0)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1 (1.1)
<i>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i>	1 (16.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Sub total	3 (50.0)	6 (54.5)	3 (37.5)	3 (25.0)	5 (31.3)	3 (30.0)	3 (13.6)	0 (0.0)	26 (29.9)
Ethical related journal									
<i>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i>	3 (50.0)	3 (27.3)	2 (25.0)	6 (50.0)	2 (12.5)	1 (10.0)	6 (27.3)	1 (50.0)	24 (27.6)
<i>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i>	0 (0.0)	1 (9.1)	1 (12.5)	1 (8.3)	3 (18.8)	0 (0.0)	0 (0.0)	0 (0.0)	6 (6.9)
<i>Journal of Ethics</i>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1)
<i>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i>	0 (0.0)	0 (0.0)	0 (0.0)	0 (0.0)	3 (18.8)	0 (0.0)	1 (4.5)	0 (0.0)	4 (4.6)
Sub total	3 (50.0)	4 (36.4)	3 (37.5)	7 (58.3)	8 (50.0)	2 (20.0)	7 (31.8)	1 (50.0)	35 (40.2)

<Table 3 > Continued

Type of publishing journal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Other (multidisciplinary journal)									
<i>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i>	0 (0.0)	1 (9.1)	0 (0.0)	0 (0.0)	2 (12.5)	1 (10.0)	4 (18.2)	0 (0.0)	8 (9.2)
<i>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i>	0 (0.0)	0 (0.0)	2 (25.0)	1 (8.3)	0 (0.0)	1 (10.0)	2 (9.1)	0 (0.0)	6 (6.9)
<i>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i>	0 (0.0)	0 (0.0)	0 (0.0)	0 (0.0)	1 (6.3)	2 (20.0)	1 (4.5)	0 (0.0)	4 (4.6)
<i>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i>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1 (1.1)
<i>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i>	0 (0.0)	0 (0.0)	0 (0.0)	1 (8.3)	0 (0.0)	0 (0.0)	0 (0.0)	0 (0.0)	1 (1.1)
<i>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i>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9.1)	0 (0.0)	2 (2.3)
<i>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i>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1)
<i>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i>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1 (1.1)
<i>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i>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1.1)
<i>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i>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1 (1.1)
Sub total	0 (0.0)	1 (9.1)	2 (25.0)	2 (16.7)	3 (18.8)	5 (50.0)	12 (54.5)	1 (50.0)	26 (29.9)
Total	6 (100.0)	11 (100.0)	8 (100.0)	12 (100.0)	16 (100.0)	10 (100.0)	22 (100.0)	2 (100.0)	87 (100.0)

<Table 4> The Most Frequent Used Keyword by Year (Ranked Upper 20 of the Research Keyword) (n, %) (N=87)

Rank	Keyword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1	Nurse	2 (12.5)	3 (7.1)	2 (6.7)	5 (11.4)	4 (7.1)	1 (2.6)	6 (6.5)	1 (11.1)	24 (10.1)
2	Nursing student	1 (6.25)	0 (0.0)	2 (6.7)	5 (11.4)	5 (8.9)	4 (10.5)	5 (5.4)	0 (0.0)	22 (9.3)
3	Bioethics, Biomedical ethics	2 (12.5)	2 (4.8)	2 (6.7)	4 (9.1)	3 (5.4)	4 (10.5)	5 (5.4)	0 (0.0)	22 (9.3)
4	Nursing ethics	0 (0.0)	0 (0.0)	0 (0.0)	1 (2.3)	2 (3.6)	1 (2.6)	4 (4.3)	1 (11.1)	9 (3.8)
5	Attitude	1 (6.25)	2 (4.8)	2 (6.7)	1 (2.3)	1 (1.8)	0 (0.0)	2 (2.2)	0 (0.0)	9 (3.8)
6	Ethics	2 (12.5)	1 (2.4)	1 (3.3)	0 (0.0)	2 (3.6)	0 (0.0)	2 (2.2)	0 (0.0)	8 (3.4)
7	Recognition	0 (0.0)	2 (4.8)	1 (3.3)	1 (2.3)	0 (0.0)	0 (0.0)	3 (3.3)	0 (0.0)	7 (3.0)
8	Nursing	1 (6.25)	1 (2.4)	0 (0.0)	1 (2.3)	0 (0.0)	0 (0.0)	3 (3.3)	0 (0.0)	6 (2.5)
9	Moral sensitivity	0 (0.0)	1 (2.4)	1 (3.3)	0 (0.0)	2 (3.6)	0 (0.0)	2 (2.2)	0 (0.0)	6 (2.5)
10	Moral judgement	1 (6.25)	0 (0.0)	1 (3.3)	1 (2.3)	2 (3.6)	0 (0.0)	0 (0.0)	1 (11.1)	6 (2.5)
11	Bioethical perceiveness	0 (0.0)	0 (0.0)	1 (3.3)	0 (0.0)	2 (3.6)	2 (5.3)	1 (1.1)	0 (0.0)	6 (2.5)
12	Ethical dilemma	1 (6.25)	0 (0.0)	1 (3.3)	2 (4.5)	2 (3.6)	0 (0.0)	0 (0.0)	0 (0.0)	6 (2.5)
13	Knowledge	1 (6.25)	0 (0.0)	1 (3.3)	2 (4.5)	0 (0.0)	1 (2.6)	1 (1.1)	0 (0.0)	6 (2.5)
14	Do not resuscitation	0 (0.0)	1 (2.4)	0 (0.0)	1 (2.3)	1 (1.8)	0 (0.0)	2 (2.2)	0 (0.0)	5 (2.1)
15	Education	1 (6.25)	1 (2.4)	0 (0.0)	1 (2.3)	1 (1.8)	0 (0.0)	1 (1.1)	0 (0.0)	5 (2.1)
16	Moral distress	0 (0.0)	1 (2.4)	0 (0.0)	1 (2.3)	1 (1.8)	0 (0.0)	1 (1.1)	0 (0.0)	4 (1.7)
17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 (0.0)	1 (2.4)	0 (0.0)	0 (0.0)	0 (0.0)	1 (2.6)	2 (2.2)	0 (0.0)	4 (1.7)
18	Decision making	0 (0.0)	1 (2.4)	0 (0.0)	0 (0.0)	1 (1.8)	2 (5.3)	0 (0.0)	0 (0.0)	4 (1.7)
19	Turnover intention	0 (0.0)	0 (0.0)	1 (3.3)	1 (2.3)	0 (0.0)	0 (0.0)	2 (2.2)	0 (0.0)	4 (1.7)
20	Death, death attitude	0 (0.0)	1 (2.4)	0 (0.0)	0 (0.0)	2 (3.6)	0 (0.0)	1 (1.1)	0 (0.0)	4 (1.7)
.....										
129	Patient rights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0 (0.0)	0 (0.0)	1 (0.4)
130	Patient advocacy	0 (0.0)	0 (0.0)	0 (0.0)	1 (2.3)	0 (0.0)	0 (0.0)	0 (0.0)	0 (0.0)	1 (0.4)
Total (n=130)		16 (100.0)	42 (100.0)	30 (100.0)	44 (100.0)	56 (100.0)	38 (100.0)	92 (100.0)	9 (100.0)	327 (100.0)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과 같은 생명의료윤리 이슈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앞서도 기술했듯이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간호가 얼마나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7]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러한 시각을 직면하고 앞으로 간호가 생명의료윤리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윤리적 간호 행위는 지속되어야 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곧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사전의료의향서나 사전의료계획서 작성과 같은 사전돌봄계획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 외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담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신 그리고 최선의 의료정보는 물론이고 적절한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간호 실무를 강화하고 윤리적 자신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료윤리 이슈는 이제 간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총 23편의 연구 중 20편의 연구가 동일한 평가도구를 사용한 의식조사 연구였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새로이 대두된 윤리의 영역이고 따라서 의학기술과 자원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전반의 현상 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그 추이와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유사한 연구의 반복에서 좀 더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양적으로 평가하여 의식이 높다 혹은 낮다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

가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민과 더불어, 선의 추구 즉 윤리에 대해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것이 궁극적인 것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21]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가 말기의료결정, DNR, 안락사와 같은 각종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결국 이는 간호에서 생명의료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의 간호의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한 방향과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기간 안에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2010년과 2015년에 연명의료와 DNR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2008년에 시작되어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이 우리사회와 의계에 미친 파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커지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간호계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2015년에 본 주제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간호에서는 이러한 인간 생명과 관련한 각종 과학기술과 제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난 8년간 윤리인식, 윤리적 이슈별 태도와 인식에 이어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간호윤리교육으로 연평균 2편 정도의 연구발표가 확인되었다. 간호윤리교육 연구 영역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10

편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학적 연구 3편, 교육 효과 연구 2편, 콘텐츠 개발 연구가 1편이었다. 교육은 간호직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간호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미국에서는 간호교육의 대변화를 촉구하면서[22] 생명의료윤리의 발달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전통적 윤리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간호가 시대적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해 보이며, 현재 우리 간호계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윤리교육의 현황과 콘텐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간호윤리 교육은 일회성 또는 단기간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대학교육 기간과 간호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간호사나 국가고시에는 윤리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윤리교육에서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하여 다음의 5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누구에게 교육할 것인가? 즉 교육대상자이고, 둘째 왜 교육하는가? 즉 교육목표이며, 셋째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즉 교육내용(contents)이며, 넷째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즉 교육공학적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효과를 확인할 것인가? 즉 평가라 하겠다.

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젠다를 구축하여 실행해오고 있다. 먼저 교육대상을 의사면허 취득 전후로 나누고, 취득 후에는 다시 분과별로 나누고 있다[15,23]. 그리고 대상별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며 효율적 전달방안 개발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교, 학회 및 협회가 긴밀히 협조하며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24].

마지(Margie) 등[25]은 윤리교육을 위한 프레임

워크(framework)를 3층위(개인, 전문직, 실무)에서 3차원(전문직관련요소, 역사적, 법적, 윤리적, 사회적 영향성, 성문법과 판례와 같은 실제적 요소)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국내 의학계의 윤리교육 전략들은 간호윤리교육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인권, 갑을(甲乙) 문화와 같이 인간관계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윤리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권이나 윤리적 풍토,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연구들이 소수이지만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구체적인 연구주제들과 더불어 마지 등[25]이 제시한 개인 층위에서의 윤리적 무장에 도움이 되고 이어 간호 영역의 윤리적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설계 분석결과를 보면 조사연구가 73.6%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실험, 질적연구, 혼합연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간호윤리연구의 설계 추이와 비교하면 조사연구는 증가를(60.0%→73.6%), 질적연구의 감소를(32.4%→9.2%), 실험 연구는 증가 경향을(3.2%→10.3%), 그리고 혼합방법은 새로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학회지 연구 동향 분석 결과[26] 중 본 연구 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조사연구 빈도 55.6%와 비교하더라도 간호윤리 영역에서의 조사연구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윤리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 간호계에서는 윤리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윤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증적 연구방법 외 다양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증적 연구는 현상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는 유용하지만 특정 기술, 실무, 정책들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관(intuition)과 원칙(principles)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접근 방법(normative analysis) [27,28],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29] 및 사례중심[30]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윤리, 특히 간호윤리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는 그 자체로서 복합적 학문 영역[20]이기 때문에 다학제 연구도 필요하다[31].

연구 대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윤리의 주제는 현재와 미래의 간호사인 것은 명백하나 대상자 중심의 연구가 전무한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번역을 포함하여 기존의 도구사용이 가장 흔했고 기존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논문까지를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87.2%)이 기개발된 도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된 도구를 주로 사용한 것 자체는 이슈가 아닐 수 있으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도구들에 대한 타당한 비평을 전제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윤리연구가 가장 많이 출판된 학술지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와 한국생명윤리학회지이었다. 덧붙여 29.9%의 연구가 다학제 학술지에 출판되고 있어 전체의 70.1%가 다학제 학술지에 출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간호윤리연구가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비율은 29.9%로 낮았다. 이는 간호계 내에서 간호윤리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데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염려를 수반하게 된다. 간호 학술지 중에서는 간호행정학회지에 총 26편 중 8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간호사 국가고시와 관련하여 간호윤리 교과

목을 학부에서 담당하는 전공이 간호행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윤리는 간호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임을 감안하면, 간호행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간호윤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간호 전공별로 윤리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윤리 연구의 원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 2017년 11월 한국간호윤리학회 창립되었음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간호윤리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어(keyword)의 수는 편당 약 3.75개로 단어구름(word cloud)에서 보듯이 생명의료윤리, 간호대학생,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즉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현상 확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간호가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와 담론이 요구된다. 더불어 다양한 윤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간호윤리연구의 연구 방법이 대부분 조사연구라는 점, 대상자가 거의 간호사나 간호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연구 도구가 단조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호윤리 연구를 이끌어 온 동기가 시대적, 학제적 및 근본적인 간호윤리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연구수행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가 실행가능성에 기반하여 수행된다면 간호윤리 연구는 편향(skewed)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와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자 개인은 물론, 조직과 학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간호윤리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각 학회지 출판 기준에 있어 다양한 주제에 따른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도 필요

할 것이다.

의학의 경우를 보면 의료윤리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이 교류하고, 의대에 인문사회의학 교실이 확립되며, 그 안에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현실에 기초한 의료윤리강령과 지침을 개정 발표하기도 하였다[32]. 이러한 결과물들은 인재를 모으고 교류한 결과로 간호계에서도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연구나 정책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간호의 사회 및 정책 참여를 독려해 오고 있으며 간호사 윤리강령을 통해 이를 명시하고 활성화 할 것을 논하고 있다[33]. 우리나라 간호윤리지침 제30조에는 간호사의 정책 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바 간호윤리 연구 영역에서도 각종 민감한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와 대상자 별로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며, 다학제연구 활성화와 간호윤리 전문가 양성 및 교류를 통해 간호윤리 연구 및 실무가 실제 간호 현장은 물론이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안성희, 권영미, 박미현 등.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 전문직 윤리. 서울 : 대한간호협회, 2016.
- 2) Gastmans C, Schotsmans P, Diercks de Casterle B. Nursing considered as moral practice: a philosophical-ethical interpretation of nursing. Kennedy Institute on Ethics Journal 1998 ; 8(1) : 43-69.
- 3) Epstein B, Turner M. The nursing code of ethics: its value, its history. Online J Issues Nurs 2015 ; 20(2) : 4.
- 4) Dahnke MD. The role of th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code in ethical decisional making. HNP 2009 ; 23(2) : 112-119.
- 5) Munson HW, Lystra E, Gretter. AJN 1949 ; 49(6) : 334-348.
- 6) Fowler M. Nursing's ethics. eds by Davis AJ, Aroskar MA, Iaschenoko J, et al. Ethical Dilemmas and Nursing Practice. 4th ed. Stamford, CT : Appleton & Lange, 1997.
- 7) Butts JB. Ethics in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eds by Butts JB, Rich KL. Nursing Ethics, Across the Curriculum and into Practice. 4th ed. Burlington : Jones & Bartlett Learning, 2016.
- 8) Wright D, Braitman S. Relational and embodied knowing: Nurs Ethics within in inter-professional team. Nurs Ethics 2011 ; 18(1) : 20-30.
- 9) Ulrich CM, Taylor C, Soeken K, et al. Everyday ethics: ethical issues and stress in nursing practice. JAN 2010 ; 66 : 2510-2519.
- 10) Iaschenko J, Peter E.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 of nursing: profession, practice and work. JAN 2004 ; 46 : 488-495.
- 11) Engel J, Prentice D. The ethics of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Nurs Ethics 2013 ; 20 : 426-435.
- 12) ICN. Ethics and human rights. Available from: <http://www.icn.ch/what-we-do/ethics-and-human-rights/ethics-and-human-rights-1704.html> [cited 2017 May 15]
- 13) Mills AE. Ethics and the healthcare organization. eds by Filerman GL, Mills AE, Schyve PM. Managerial Ethics in Healthcare: A New Perspective. Chicago : Health Administration Press/Association of University Programs in Health Administration, 2014.
- 14) National Nursing Summit. A blueprint for 21st century nursing ethics: report of the National Nursing Summit executive summary. Nursing Outlook 2015 ; 63(4) : 379-383.
- 15) 유상호, 주영숙, 이상형. 면허 취득 후 의료윤리교육. 대한의사협회지 2017 ; 60(1) : 24-31.
- 16) 안성희. 한국 간호윤리 연구에 대한 양적 분

- 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 12(3) : 261-274.
- 17)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 Kennedy Institute of Ethics, Georgetown University. Available from: <https://bioethics.georgetown.edu/library-materials/bioethics-research-library-databases/ethx-web/bibliographies-bioethics-topics/> [cited 2017 May 15]
 - 18) Borry P, Scotsmans P, Dierickx K. The birth of the empirical turn in bioethics. *Bioethics* 2005 ; 19 : 49-47.
 - 19)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3판. 서울 : 정담미디어, 2015.
 - 20) Yang JS, Koo MJ. Bioethic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entering to the case of Daegu University. *J Korean Bioethics Assoc* 2009 ; 10(1) : 1-16.
 - 21) 아리스토텔레스. 조대웅 편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 돌출새김, 2008.
 - 22) Benner P, Sutphen M. *Educating Nurses: A Call for Radical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 John Wiley & Sons, 2009.
 - 23) 김장한.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교육. 대한의사협회지 2017 ; 60(1) : 18-23.
 - 24) 김신미. 간호윤리교육현황과 방향모색. 한국간호교육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5월.
 - 25) Margie H, Shaw CT, D'Angio RD. Educational perspectives: personal, professional, and practice: a framework for ethics education. *NeoReviews* 2016 ; 17(2) : e61-e69.
 - 26) 최명애, 김남초, 김경미 등. 한국간호연구의 동향: 대한간호학회지 및 회원 학회지(창간호부터 2010년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014 ; 44(5) : 484-494.
 - 27) *Bioethics-The Methods Of Bioethics*. Available from: <http://science.jrank.org/pages/8458/Bioethics-Methods-Bioethics.html#ixzz4rJPyoNuU> [cited 2017 May 15]
 - 28) Rysiew P. "Naturalism in Epistemolog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7 Edition), Zalta EN (ed.). Available from: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7/entries/epistemology-naturalized> [cited 2017 May 15]
 - 29) Daniels N. "Reflective Equilibriu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1 Edition), Zalta EN (ed.). Available from: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1/entries/reflective-equilibrium/> [cited 2017 May 15]
 - 30)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판단력. *법철학연구* 2008 ; 11(1) : 65-84.
 - 31) 전방욱, 김만재. 학제적 연구로서의 생명윤리학. *생명의료윤리정책연구* 2008 ; 2(3) : 199-214.
 - 32) 김옥주, 박유행, 현병기. 한국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의 연혁과 개정내용. 대한의사협회지 2017 ; 60(1) : 8-17.
 - 33) Fowler MD. Nursing's code of ethics, social ethics, and social policy. *Hastings Center Report* 2016 ; Suppl 46 : s9-s12.

Nursing Ethics Research in Korea from 2009 to 2016*

KIM Shinmi**, LEE Insook**,***, KIM Se Young**, NOH Yoon Goo**, PARK Bo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nursing ethics research in Korea by analyzing origina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from 2009 to 2016. A total of 87 article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in terms of topic, study respondent, design, publishing journal, and keywords. The thre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s are (a) ethical awareness, (b) attitude and recognition about ethical issues, and (c) nursing ethics education, in order. Study respondents were mainly nurses (44.9%) and nursing students (42.7%).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 was survey (74.2%), and most articles were published in non-nursing journal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everal recommendations concerning research topics, methodologie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nursing ethics research were made.

Keywords

nursing, ethics, nursing research, Korean Citation Index

* This research is financially supported b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17~2018.

**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